

# 폐장일까지 들썩거린 ‘정치테마주’

비상계엄·尹 체포영장 청구 등에  
 李 테마주 오리엔트바이오 12.22% ↑  
 오리엔트정공도 주가 5.88% 올라  
 지난해 우원식테마주 대원전선도 급등

〈지난해 코스피 주가 상승률 순위〉  
 (기간: 2024년 1월 2일 - 12월 30일)

종목	등락률
1 HD현대일렉트릭	364.72
2 삼양식품	254.17
3 SNT에너지	199.31
4 두산	171.57
5 이스타코	161.93
6 하이트론	161.33
7 대원전선	157.13
8 일진전기	156.11
9 가온전선	155.66
10 오리엔트바이오	154.86
11 일성건설	153.99

지난해 국내 증시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 등 정치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4년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권에 정치테마주가 포진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도 정치테마주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 모습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로,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주로, 이 대표가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재명 테마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이날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해 154.85% 상승했으며, 오리엔트정공도 코스닥 시장에서 450.66% 급등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2일에도 오리엔트바이오는 12.22%, 오리엔트정공은 5.88%씩 상승했다.

또 다른 이재명테마주인 이스타코와 일성건설도 지난해에 각각 161.93%, 153.99%씩 올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원전선도 157% 급등했다. 대원전선은 서명환 회장이 우 의장과 경동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정치테마주로 꼽히고 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정치테마주가 아닌 HD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이 각각 364.72%, 254.17%씩 오르면서 200% 이상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 하락에서 최고 12.98% 상승으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일일 최대 하락률은 2.78%, 상승률은 2.43% 수준이다. 다만 지수에 편입된 구체적인 종목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치테마주는 통상적으로 주식에서 기업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보다

〈지난해 연말 코스피 주가 상승률 순위〉  
 (기간: 2024년 12월 30일 = 마지막 거래일)

종목	등락률
1 오리엔트바이오	30.00
2 유니퀘스트	29.88
3 흥국화재우	25.00
4 한올바이오파마	15.20
5 경보제약	13.92
6 고아스	13.78
7 KC그린홀딩스	11.72
8 태양금속	10.24
9 이스타코	10.09
10 그린케미칼	8.24

/한국거래소

는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으로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테마주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가가 등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했던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며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정치테마주 투자에는 가급적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상방 저항 강화와 함께 내부 정치 변수에 대한 의존적 주가 등락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나, 관련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한투운용 “ACE ETF, 업계 최고수익 기록”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에 3개 상품 올라

권에 들었다”고 밝혔다.

“ACE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신규 상품 공급과 함께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 제공을 지속하며 업계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ETF와 투자 콘텐츠를 새로 선보이는 동시에 기존 상품의 안정적 운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ETF운용본부장은 2일 지난해 자사의 ACE ETF 성과를 평가하며 새해의 각오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로 집계됐다.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에 3개 이상의 상품을 올린 것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일했다.

한투운용 측은 “1년 수익률 기준으로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197.07%) ETF ▲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ETF(84.02%)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82.06%)가 지난해 연간 수익률 10위

이어 “점유율 상승세는 ETF 운용사 중 제일 컸으며, 이는 국내에서 ETF 사업을 영위 중인 26개 운용사 중 가장 큰 성장세다”라고 밝혔다. ACE ETF의 시장 내 점유율은 지난해 말 4.92%에서 2024년 말 7.56%로 2.64%포인트 증가했다. 순자산액은 2023년 말 5조7014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1256억원으로 130.22% 증가했다.

한투운용은 ACE ETF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신규 상품 출시’ 덕분이라고 꼽았다. 한투운용은 지난해 한 해 동안 21개의 신규 상품을 선보였는데, 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ETF 상품으로 처음 출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연간 상장 건수이다. 21개 상품 중에는 국내 최초 데일리리플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 3종을 비롯해 빅테크 기업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 4종,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 인도 액티브 ETF 2종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또한 꾸준히 유입됐다. ACE ETF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2조7645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국내 증시가 2일 2025년 개장식을 열고 새해 첫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는 서울 사옥에서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진행했다. 개장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금융당국·자본시장 유관기관 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했다. /뉴스IS

# “국장 매력없어”... 美로 짐싸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

개인투자자, 지난해 5.3兆 순매도  
 신용융자잔액도 하반기 들어 급감  
 경제 불확실성·정치 리스크 등 영향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으로 이탈하는 이미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투자로 넘어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3546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던 신용융자 잔액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15조8243억원으로, 7월까지만 해도 20조 원을 넘어서었으나 하반기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부진, 정치적 리스크가 결합해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내 증시는 주요국 중 최하위권의 수익률

을 기록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기업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했다.

국내 증시에 이탈한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미국 주식을 약 109억8769만 달러(16조171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1175억9650만 달러(173조785억원)로 집계돼 연초 대비 74.6% 증가했다. 전문가

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에도 국내 증시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어 미국 주식 싹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책의 영향을 강조하며, “관세 및 보조금 축소,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등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관과 개인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는 수급 구조적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바닥 형성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일 만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그리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만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

# “고액자산가, 올해 오리무중·교토삼굴 예상”

삼성증권, SNI 고객 341명 대상  
 주식시황 전망·투자계획 설문조사

연을 수 있음’ 12.8%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녹록지 않은 2025년 새해 금융시장을 전망했다.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금융시장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금융 환경’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금융 환경’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 서비스 ‘SNI’ 고객 34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식시황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고액 자산가들은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오리무중(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금융 환경)’과 ‘교토삼굴(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위기에 대응)’을 각각 30%씩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외에도 ‘전전공공(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 14.1%, ‘고진감래(일시적인 손실이나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면 결국 수익을

사자성어를 통해 바라본 고액 자산가들의 내년 주식 시장 기대감은 작년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작년에는 ‘거안사위’, ‘다다익선’, ‘상전벽해’ 등을 선택해 긍정적인 시장을 전망한 응답자가 77%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그 비율이 50% 수준에 그쳤다. 새해 코스피의 연말 지수 상승률을 물어보는 질문에도 작년에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가 약 80%에 육박했으나, 올해에는 51% 수준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2025년 코스피지수의 평균 등락률은 약 +5.2%로 나타났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팀장은 “한국 시장의 상대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지만 국내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투심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